

전도자의 찬양

사도행전16:25-32

이재남 목사님

그 은혜를 인하여

나 은혜로 받은 구원 나 선물로 받은 생명
 더 받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완전한 자녀 되었네
 나 주와 함께 죽었고 나 주와 함께 살았으니 너의 삶은 오직 주만 위해
 내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나도 찾는 것
 주님의 애통함이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
 주님과 함께이면 재앙이라도 주와 함께이면 땅 끝이라도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 어디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되기 원하네

나 주와 함께 죽었고 나 주와 함께 살았으니
 나의 삶은 오직 주만 위해 내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 나도 찾는 것
 주님의 애통함이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
 주님과 함께이면 재앙이라도 주와 함께이면 땅 끝이라도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 어디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되기 원하네
 이것이 나의 소원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되기 원하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다. 나는 미국에서 온 이재남 선교사이다. 영적문제 시달리던 린넨트가 하나님의 자녀 되서 복음 누리다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실 이 자리를 부탁받고 답을 선택 못 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부족하지만 심부름을 하겠다는 겸손함으로 오게 되었다. 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는데, 찬양팀과 성가대를 하다보니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 음악을 계속 공부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더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성악과를 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꿈이 목사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성악을 공부하다가 훌륭한 찬양사역자가 되어서 나중에 40대가 되면 신학교를 가야겠다.'였다. 대학교 4학년 때 유학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다. 국가가 어려운 상태니까 실제로 유학하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도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 다락방 신문에 총회신학연구원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서는 40세에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 나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유학의 꿈을 접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더라. 법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30세 6개월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안수를 받았다. 지금 RCF, DCM에서 하는 찬양팀, WRC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찬양사역을 맡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미국으로 RTS 교수요원으로 파송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조금 짓궂으신 것 같다. 나는 40세에 신학교를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0세에 목사가 되게 하였고, 40세에 음악을 다시 공부하게 하셨다. 그래서 40대 때 미국에서 석사를 시작해서 마치고 내년엔 박사과정을 마칠 것 같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전도자의 찬양이다. 왜 전도자의 찬양이라고 잡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참사랑교회 성전에 처음 와봤다. 오금중앙교회 성전에는 몇 번 와봤지만 이 성전은 처음 와봤다.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해보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사랑교회 부제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했다. 4층에 가보니까 목장이 없다. 오늘 찬양에 배라고 하더니 찬양 분위기가 뜨겁더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속히 말하자면 우리 찬양이 없는 것이다.(웃음) 이상하다 싶어서 지도를 봤더니 다른 교회였다.(웃음) 실수였지만 그 속에서도 메시지를 찾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는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 잠시 봤지만 정신을 놓고 찬양하더라. 찬양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사실은 꼭 음악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배시간에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찬양한다. 그래서 이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음악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 음악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찬양 자체가 예배이다.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찬양하는 시간에 멍하게 계신 분들이 참 많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다면 찬양 부르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이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전달 받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배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고백 드리는 시간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경배 행위로 봤을 때 예배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찬양으로 무엇을 준비하

는가. '예배 전 찬양이다. 우리가 예배 전, 예배 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시간 때우기 위해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다. 이미 예배시간에 온 그 자체가 영적 분위기가 된 것이다. 바로 찬양하면 된다. 물론 인도자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정신없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혼을 빼놓는 것은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가 잘한다고 볼 수 없다. 옛날 군대시절 이태원에서 국군중앙교회를 2년간 섬겼는데, 그때는 국방부 군악대 소속 병사들이 와서 찬양팀을 한다. 국방부 군악대는 대한민국의 음대생 중에서 오디션을 봐서 1년에 몇 명만 뽑는다. 그래서 국방부 군악대가 웬만한 음대보다 실력이 좋다. 그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니깐 난리가 난다.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정신이 나갈 정도이다. 색소폰 불고, 기타도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너무 잘해서 찬양이 안 된다. '와 멋있다. 잘한다.' 이 생각만 든다.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시간 때우려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 전도사 시절에 대학수련회에서 찬양인도를 해야 했는데, 그 날은 강사목사님이 2시간을 늦으시는 것이다. 준비해 간 찬양 50곡을 다 부르고 끝이 났다. 더 이상 부를 곡이 없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목사님을 기다리지 말고 찬양합시다.'했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찬송가 피고서는 찬양하는데, 찬양을 같이 했던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류목사님이 2시간 늦으신 건 아니다.(웃음) 찬양 자체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1.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곧 예배의 이유이다.

- (1) 창세기 1장 27-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 (2)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찬양받기 위해서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계복음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된다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찬양이 안 되는데 3오늘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 교리서를 만들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서 제1번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배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한다.

2. 그렇다면 누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 (1) 하나님 자녀만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다윗이 찬양 할 때가 언제였는가. 왕이 되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부터 찬양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갈 때 찬양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그런가. 다윗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찬양한 것이다.
 - ② 바울이다. 바울이 찬양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 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나온다. 무엇을 찬양했는지 궁금했다. 깊이 기도하다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알아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맞지 않은가. 바울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알게 되지 않았는가.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그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 찬양을 부른 것이다. 구원받은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한가. 자다 생각해도 감사하다. 눈 떠도 너무 감사하다.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내가 전하면서 안 믿어진다. 아무리 전해 봐도 맨 정신으로 안 믿어진다.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부터 안 믿어진다. 그런데 그 분이 예수님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믿어지는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웃음) 살아난 것도 안 믿어지는데 구름타고 승천했다고 한다.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어떻게 타는가.(웃음) 그런데 그 분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음을, 전하면서 안 믿어진다고 생각한다.(웃음) 그런데 회한하다. 믿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여기에 생을 건 제자들이 나온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절게요.' 하는데 '이목사야. 뭐하니.' 버럭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하나님, 전하면 되는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전할게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만남이 5분 이상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택시 탄 지 5분 됐는데 왜 복음 안 전하냐고 하나님이 소리치셨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믿으려면 믿으세요.'했다. 그런데 믿겠다고 한다. 너무 피곤해서 대충 이야기했는데도 믿는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한다. 바울이 그 찬양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지 않겠는가.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며,'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의 걸음 속에' 이 선물을 아니했겠지만 바울의 신앙을 봤을 때 이 내용은 맞는 것 같다. 우리의 찬양이 감옥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 드린다. 중요하지 않은 개인사이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사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갈 때마다 찬송가 피고 놓고 10곡씩 부른다. 왜 부르는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지 않겠는가. 만약

어머니가 20년 살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때는 안 슬프겠는가. 시간표가 온 것이라면 그 시간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돌리겠는가. '엄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해요.'한다. 그러곤 찬송가 펴놓고 찬양한다. 성령충만 받는다. 병에 걸려도 찬양하기를 바란다. 죽는 날 까지 찬양 부르시길 바란다.

(2) 전도자는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자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 받은 것이다. 경배의 대상을 빼앗긴 자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빼앗겨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3.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겠는가.

(1)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늘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2)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다. 바람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괜찮다. 노래는 좋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난 난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게 되기를 축복한다. 진짜 괜찮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복음을 깨달은 이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축복 드린다.

결론이다. 그렇다면 예배의 결과, 찬양의 결과는 무엇인가.

1. 기적이 일어났다.

- (1) 목토가 움직이게 되었다.
- (2)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다.
- (3) 닫힌 문이 열렸다.

예배하는 시간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된다. 어디에 묶여 있는가. 예배시간에 풀어진단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모든 것을 역사하는 그 시간이 예배이다. 사업하시는 분도 여기에 계실 것이다. 예배시간에는 휴대폰을 꺼놓기를 바란다. 그 시간에 계약을 따라 하는 계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휴대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예배시간에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다. 그것도 몸을 숙이면서 작게 소곤거리면서 나간다. 누구를 보고 배웠겠는가. 그래서 선포했다. "나는 주일에 휴대폰 안 가지고 다닐 것이다. 주일은 Cellphone Free Day이다. 나를 찾는 사람은 교회로 오면 된다. 정 바쁘면 교회로 전화해라.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일단 내가 선포했으니까 내 앞에서 쓰지 않는다. 예배시간에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다른 곳에 집중이 많이 되어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묶인 것이, 닫힌 것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다. 육토가 흔들린다면 일본은 맨날 기적일 것이다.(웃음)

2. 더 큰 기적은 이것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린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개인과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지역의 사명자이다. 그 다음에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난다. 지역의 갑급한 자이다. 그 다음에는 간수를 만난다. 충성된 자이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교회가 생겼다. 빌립보 교회의 완성이 빌립보 감옥에서 된 것이다. 바울이 그 날 밤에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를 소개시켰겠는가, 안 시켰겠는가. 만나게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탐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다락방전도이다. 예배시간에 전도문이 열린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삶 가운데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희한한 문이 열린다.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다.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집에서 아내와 문화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동요를 가르친다. 미국에서는 엄마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아이들은 영어로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듣는 것만 잘하지, 말하는 것에 약하다. 그래서 한국어 동요를 가르친 지 6년이 되었다. 소문이 나서 매주 초등학교 40명이 모인다. 감사하다. 주일학교를 토요일마다 40명씩 모여서 하고 있다. 그 곳에서 원색복음을 선포하고 동요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전화 왔다. 우리가 목사 부부라는 것을 알고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을 했다. 몇 가지 질문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양가 부모님이 완전 이상승배하는 집안이다. 일단 이 분과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중에 걸렸던 아이가 치유 받았다.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려 노래는 부르는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연락이 왔다. 시택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오셔서 복음 전해줄 수 있냐고 묻는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포항이라고 한다. 가깝다.(웃음) 비행기 타면 45분이라고 한다. 매주 펜실베이니아에 전도학교 가는데 10시간 왕복 운전했다. 가까운 포항이다. 편도 1300km에 있는 시카고 지역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서 세 강의 집중 훈련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 그렇

게 살던 내가 포항 정도는 가볍게 갔다. 온 가문이 모였다. 소개할 것도 없이 바로 예배 시작했다.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고 흑암결박하고 예수 전했는데 온 가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쉽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모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가서 전하면 된다. 문이 많이 열린다. 내가 진짜 예배하고, 내가 진짜 3오일에 성공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이 열린다. 40대 때 노래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뒀다가 40대 때 다시 복귀해서 프로 선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운동과 노래를 했었는데 노래도 운동과 같다. 몸을 관리해야 한다. 쉽지가 않다. 그런데 40대 때 노래를 시작하게 하셨다. 연습할 시간도 얼마 없었다. 일주일을 6일 가지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냥 경험해서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했다. 워싱턴 국립오페라단이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국립오페라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디션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200명이 오디션을 봤는데 한 명을 뽑았다. 아내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더니 "하나님 참 바쁘신가보다.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었나보다." 말했다. 맞는 말이다. 내가 한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내 의가 나타나겠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라면,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왔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는가. 그런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까마귀 수천마리를 보내셨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보기를 바란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드리면 된다. 진짜 힘들 때면 혼자 찬양하기를 바란다. 다 던져놓고 찬송가 펴라. 찬송가 1장 부르면 모든 답이 나온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하고 마지막 장에 '아멘.'하고 끝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는 믿는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문제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전도사님과 나이가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다. 나이가가라 폭포가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란다. 나이가가라 폭포가 개인 것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사실은 비밀인데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혹시 하 씨?" 하고 묻는다.(웃음) 우리 아버지 것이다. 문제될 것 없다. 하버드 대학 갔던 어떤 램프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 대학 갔다고 한다. 그래서 회를 냈다. "너만 축복받고 다 저주 받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간 것이다." 좋은 대학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다.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다.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살리라 가야 한다. 살리라 하버드, MIT 가야 한다고 램프한테 말한다. 그것이 맞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위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것이다. 다 바울 될 필요 없다. 베드로도 돼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바울이지 않겠는가. 베드로가 무시 받을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웃음) 사도행전 2장에 3천명, 3장에 5천명 영접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물 위를 걸을 사람이 없다. 베드로만 걸었다. 베드로의 성격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냥 예배하면 된다. 찬양하면 된다. 찬양 한 곡 더 드리겠다.

나 이제 알았네

나는 몰랐네 작은 그 일에도 하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사건 속에서도 하늘의 축복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핍박 속에서도 미래의 참 언약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불신앙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모두가 불평해도 나는 주께 감사를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넘어 그의 주신 절대목표를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성공을 넘어 그의 주신 절대사명을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성취를 넘어 그의 주신 절대대헌신을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을

난 이제 알았네 외로움과 갈등은 서미이 되는 길인 것을
난 이제 알았네 노예같은 상황도 출애굽의 길인 것을
난 이제 알았네 핍박 속에 있어도 전도자가 누릴 축복임을
난 이제 알았네 분절 속에도 있을 때 참된 나를 찾는 축복임을

난 이제 알았네 매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을
모두가 넘어져도 나는 주께 영광을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넘어 그의 주신 절대목표를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성공을 넘어 그의 주신 절대사명을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성취를 넘어 그의 주신 절대대헌신을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을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몸된 귀한 강단에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계 237개의 나라 문이 열리려고 전 세계의 램프를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램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